KYOBO
교보증권

2021년 2월 주식시장 전망

Bull주사의 흉터

2021년 주식시장이 뜨겁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투자열풍은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문제를 봉합하지 못했지만,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고, 경기침체 안정을 위한 부양정책은 유지되고 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강렬한 기세는 한층 발전된 삶을 열망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에서 동력을 얻는 듯 하다.

주가급등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경기침체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예방주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김형렬 리서치센터장

SUMMARY

- 제철음식이란 평소에도 맛있는 식재료일 수 있으나, 때에 맞춰 먹으면 더욱 맛있을 때 쓰는 단어이다. 2021년 투자환경은 참 맛있는 투자가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금리환경도 그렇고, 각종 투자활동이 강화되었을 때 낙관적 기대가 잘 반영될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투자자 반응은 더욱 뜨겁다. 맛있음을 느끼는 차이, 숨겨진 맛을 찾아낸 것일까? 아니면 굶주림이 최고의 맛을 느끼게 만든 것일까?

- 2월 주식시장 전망 타이틀로 선정한 'Bull주사의 흉터 ' 는 현재 주식시장의 강세랠리(Bull)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 '흉터'로 남을 수 있는 잠재 불안요소를 고민해보고자 선정한 타이틀이다. 불주사는 결핵을 예방하는 주사(BCG)를 뜻하는 용어로 접종 방법이 바뀜에 따라 흉터 모습이 달라져 세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된다고 한다.

- 침체환경에서 벗어나려면 거쳐가야 할 것들이 있다. 효율적이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투자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현재 주식시장의 반응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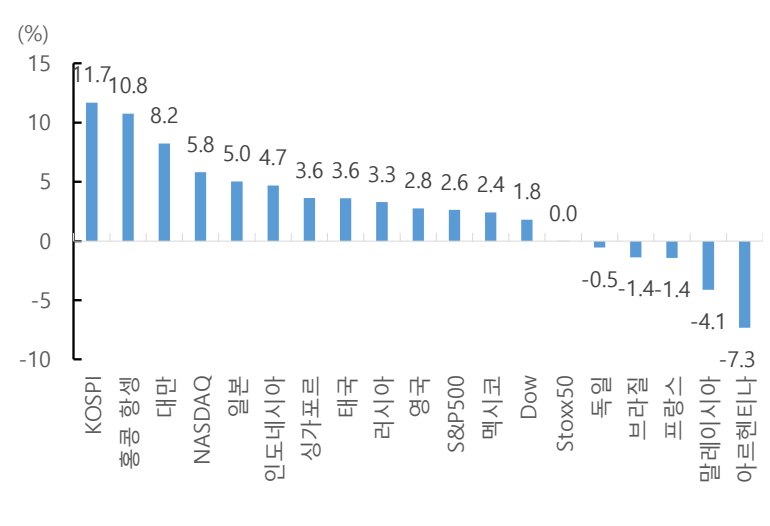
- 연초부터 이어진 급등을 불편하게 느끼는 투자자도 분명 있을 것이다. 이상급등에 따른 부작용도 겪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아직도 투자자에게 많은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KYOBO
교보증권

1월 주식시장 리뷰, 2월 주식시장 전망(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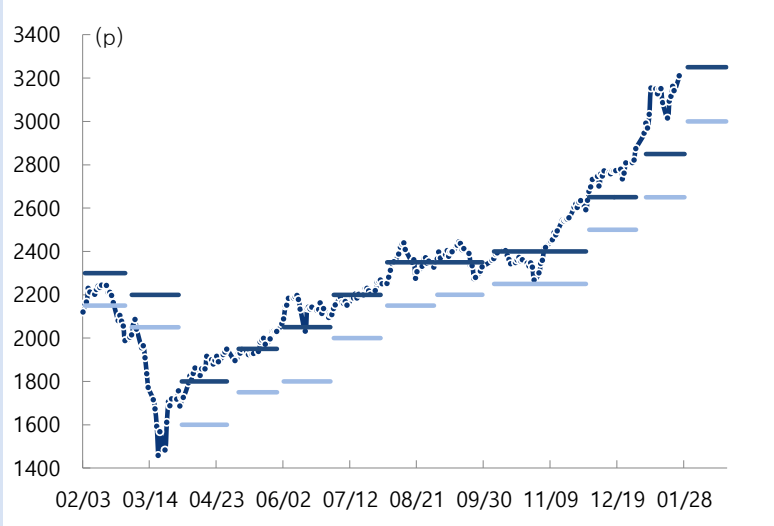
- 1월 주식시장은 한국 주식시장의 역사를 새로 쓴 시간으로 기록될 것 같다. 다소 부담스러웠던 연말랠리를 극복하고 코스피 3,200p를 상회하는 등 확장세가 더욱 강화되는 반응을 보였다. 성장가치를 어필하는데 소극적이었던 대기업 집단의 공격적인 투자 계획은 시장 참여자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게 만드는 변화였다.
- 2월 주식시장은 상향된 투자시선의 높이와 몸통의 밸런스를 체크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초랠리 이유를 증명하는 펀더멘탈 모멘텀 등장 가능성이 크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집중된 매수세가 시장 전체로 확산되는 선순환 구도가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될 수 있다. 일시적 조정이 있더라도 투자기회는 상시 제공된다.

1월 글로벌 주요국 증시 수익률



자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코스피 예상 밴드와 추이, 2월 예상밴드 3,000p~3,25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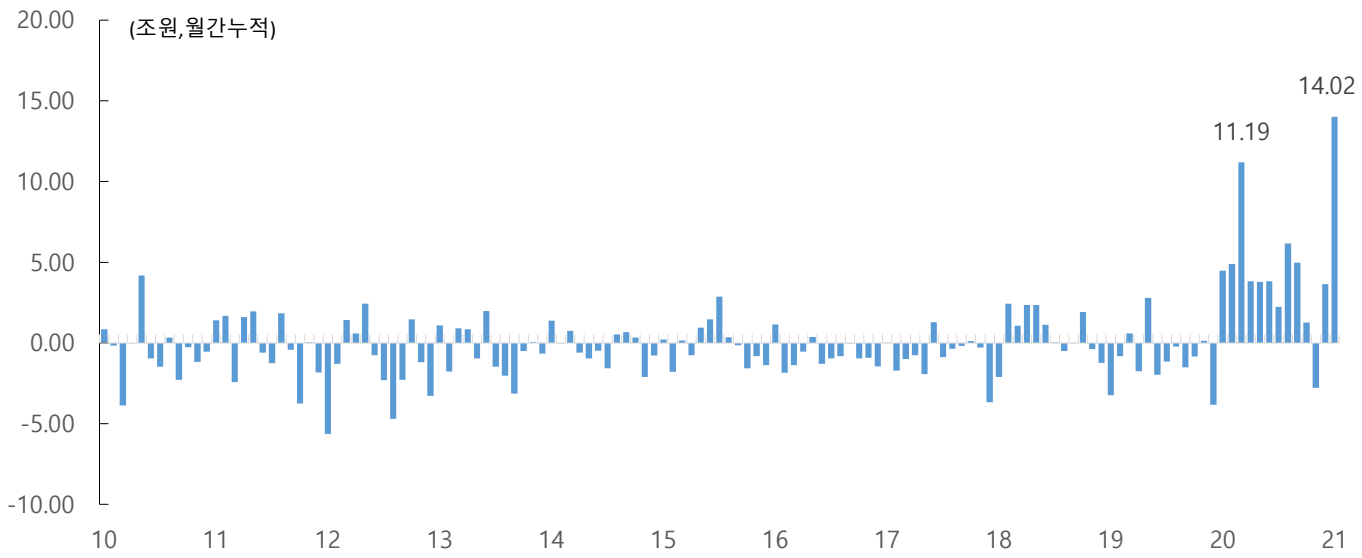


자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발전된 투자문화, 개인이 주도하는 강세장

-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의 주식 직접투자는 시간이 흐를 수록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지난해 팬데믹 쇼크가 발생했을 때 무려 11조원 순매수를 기록했던 개인투자자는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선택이었음을 증명. 제로금리를 토대로 자산시장의 가격 상승이 계속되며 1월 한달 간 개인은 14조원이 넘는 순매수를 기록
- 과거 개인 투자자의 투자형태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상품(펀드)의 가입 중심이 주류였다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투자정보와 지식을 습득한 스마트 투자자의 능동적 대응이 투자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

개인 투자자의 월간 순매수 금액(2010년 이후)



자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이상적인 수급 환경 = 선순환

- 매수주체가 개인에게 집중된 상황에 대해 우려의 시각이 있음. 다만, 현재의 변화가 가계의 투자자산 중 주식투자 비중이 현저히 낮았던 구조적 환경이 바뀌는 상황에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할 시점. 이미 국내 주식시장에서 기관 및 외국인의 보유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점을 지적
- 지난해 이후 외국인의 순매도 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고 있지만, 지난해 9월 이후 외국인 주식보유비율을 수직상승 하는 상황. 즉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시장 이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향후 수급 선순환의 한 축을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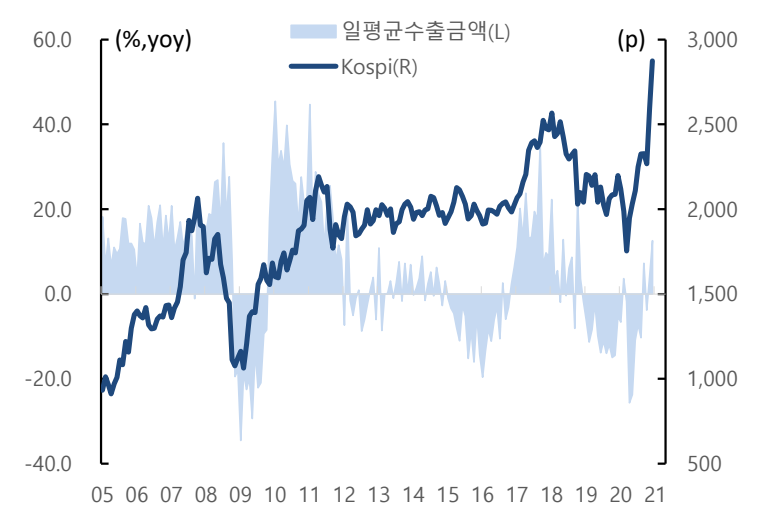
외국인 누적 순매수 금액과 외국인 주식보유 지분율 추이(거래소 기준)

자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Bull주사 효능은 '펀더멘탈 모멘텀 강화' 증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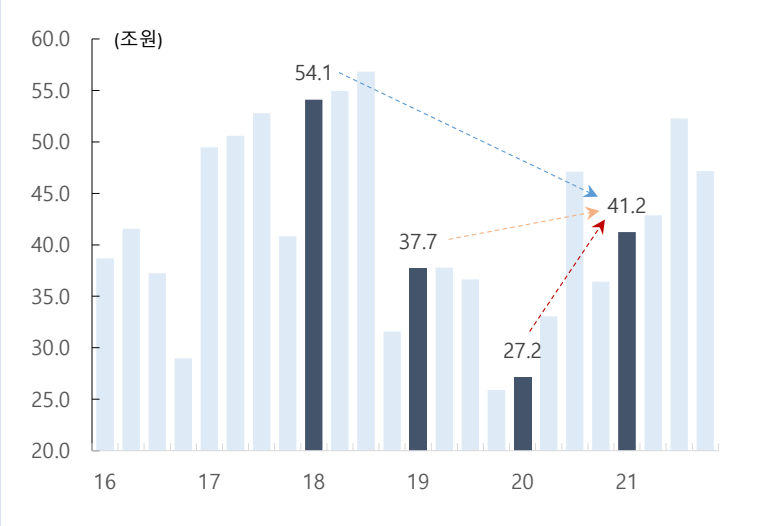
- 한국 주식시장의 연초랠리는 개인투자자의 이상반응에서 비롯되었다기 보다 2021년 한국 펀더멘탈의 강화를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됨. 한국 일평균 수출액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각종 부양정책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등장할 수 있음.
- 또한 거래소 상장기업의 2021년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41.2조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50% 이상 급증한 규모. 미중 무역분쟁이 극심했던 2019년 1분기(37.7조원) 보다도 증가한 규모인 만큼 이익모멘텀 강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반도체 호황국면이었던 2017, 2018년 보다는 레벨 다운된 상태

일평균 수출금액과 코스피 추이



자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기업이익 모멘텀, 저점 통과 이후 강화국면 진입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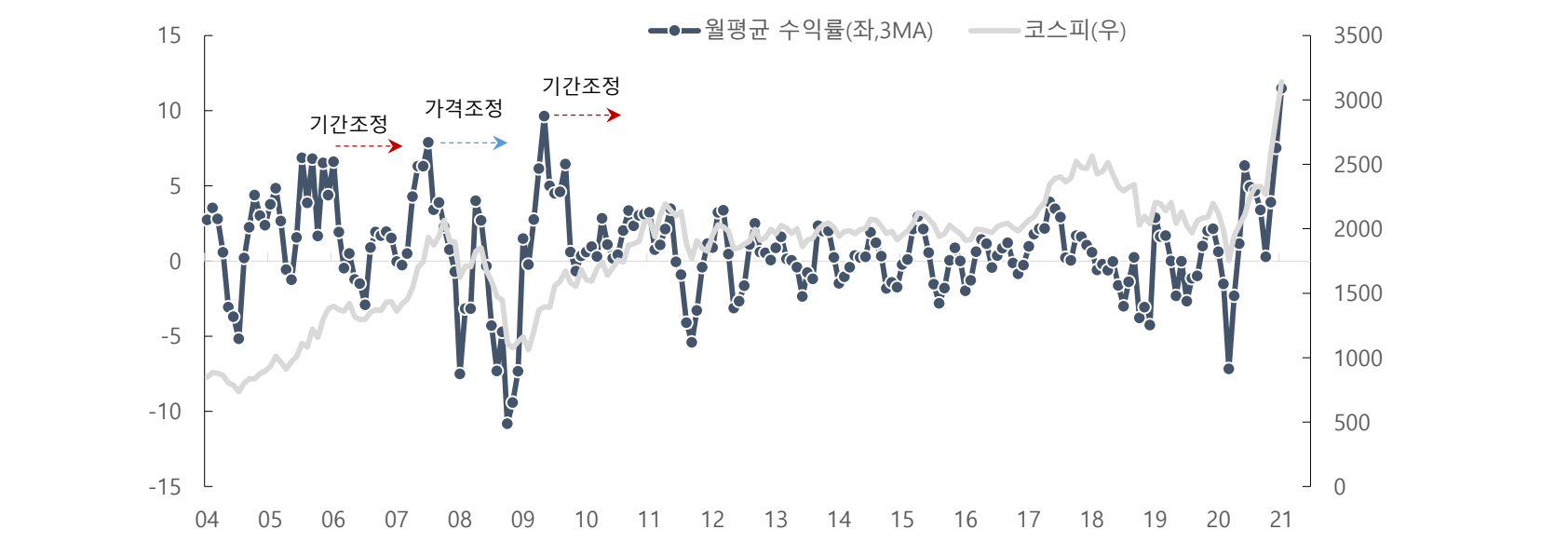


자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Bull주사의 흉터, 영광의 상처가 될 수 있을까?

- 지난 11월부터 월평균 코스피 변화율이 10%를 상회할 만큼 단기 급등이 진행되는 상황. 주가 급등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는 만큼 '단기조정'의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
- 3개월 월평균 수익률이 0%에 수렴하는 '기간조정 시나리오'와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가격조정 시나리오'를 구분 짓는 것이 필요. 현 시장추세를 훼손시키지 않는 기간조정 확률이 크다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변동성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

코스피와 월평균 수익률(3개월 기간평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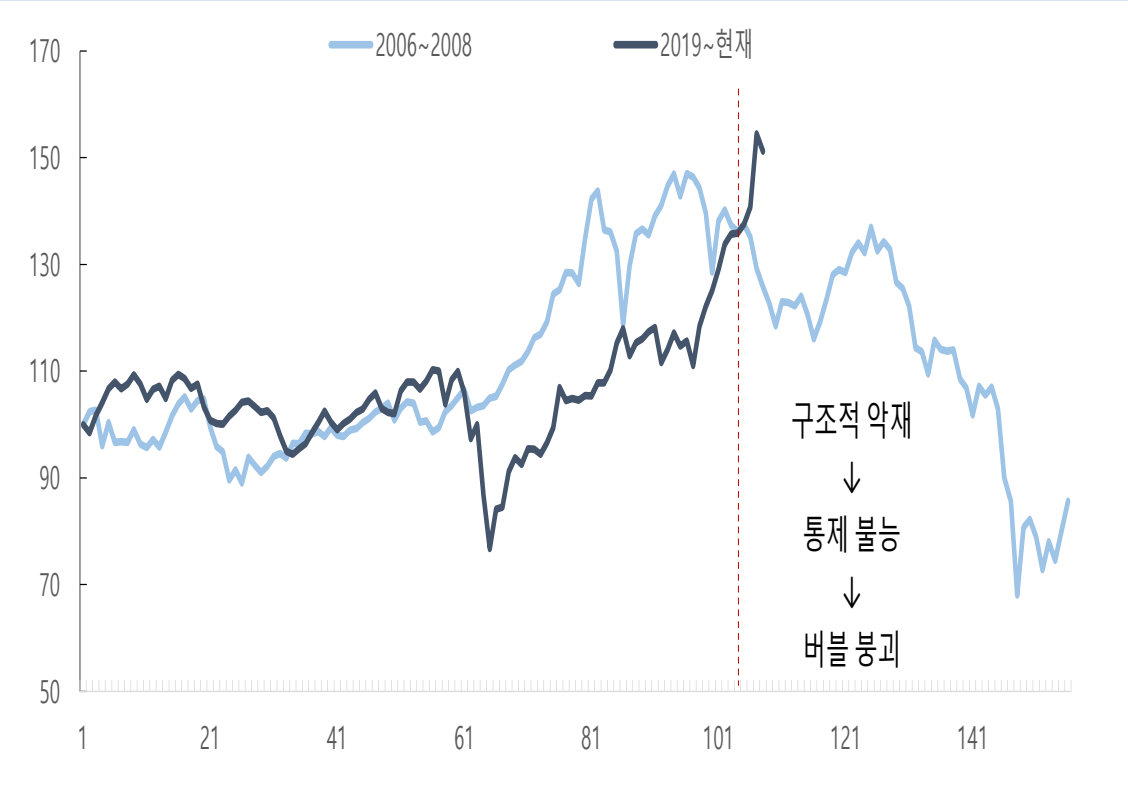


자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강세장 둔화의 기억(1), 통제불능 경기침체와 버블붕괴

- 차이나붐(China Boom)으로 불리는 2006~2008년 강세국면과 현재(2019년~현재) 코스피 모습을 비교해 본 그림
- 2년 주가상승률은 대략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고, 2007년 말부터 가파른 가격조정을 기록
- 글로벌 통화정책기조가 긴축모드로 전환되었고,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져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던 구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부 금융기관에 제한될 것으로 보았지만, 연쇄적인 채무불이행 악재가 금융기관 건전성을 위협하며 금융위기 사태를 촉발
- 침체요인 등장에 대해 정부, 감독기관이 통제불능 상태를 보이며 급진적인 버블 붕괴 현상을 보임

강세장 둔화의 기억 _ 금융위기의 추억(통제불가능 경기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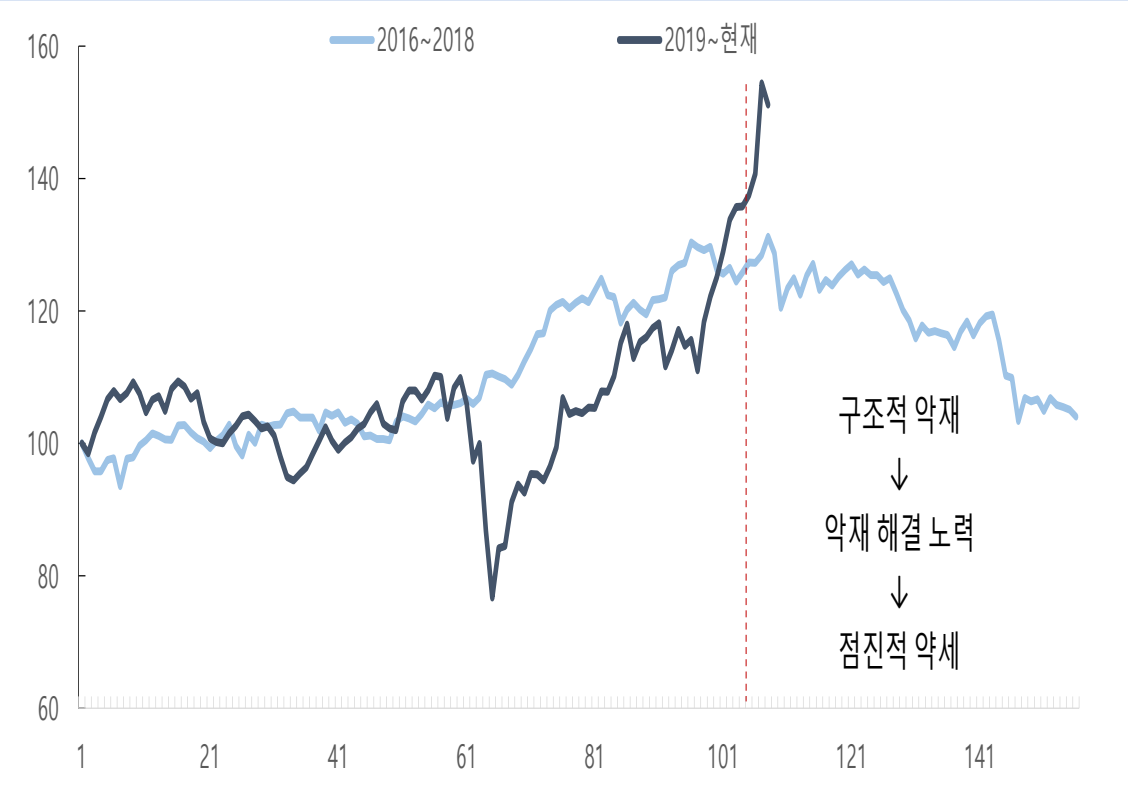


자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강세장 둔화의 기억(2), 모멘텀 소멸로 원위치

-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던 2016~2018년 강세국면과 현재(2019년~현재) 코스피 모습을 비교해 본 그림
- 2년 주가상승률은 현재가 압도적으로 강하고, 코스피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했던 공통점을 가짐
- 2017년 주가 상승은 글로벌 경기 호황과 미국 성장기업(FAANG)의 투자강화, 반도체 수요급증 및 가격상승을 바탕으로 강세 시현
- 2017년 거래소 상장기업 실적은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할 만큼 반도체 산업의 편중현상이 극심했던 기간. 이익모멘텀 강화와 주식시장이 동행했던 기간.
- 2018년 연초부터 무역분쟁 시작이 글로벌 교역환경을 악화시켜 모멘텀 지원을 약화시키고 주가는 이를 반영. 성장가치 제거되고 현재로 복귀하는 반응을 보임.

강세장 둔화의 기억 _ 모멘텀 둔화 및 소멸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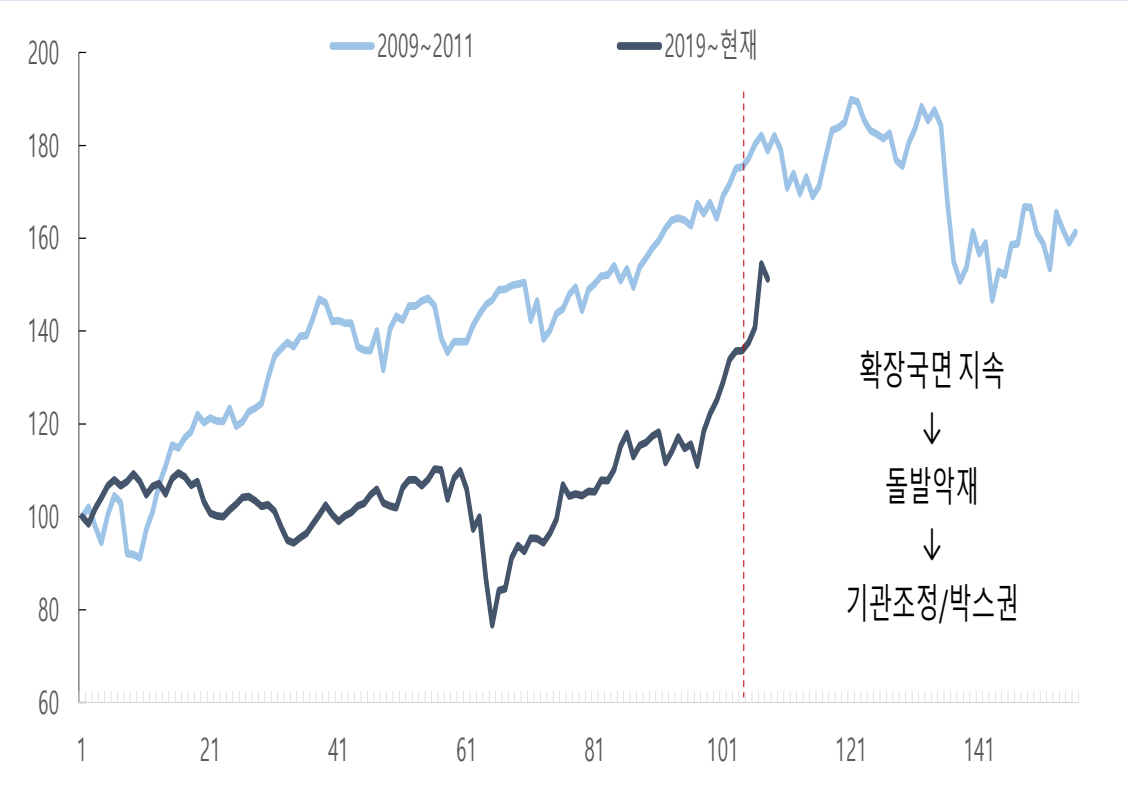


자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강세장 둔화의 기억(3), 새로운 도약의 시작

- 금융위기 극복과정으로 불리는 2009~2011년 강세국면과 현재(2019년~현재) 코스피 모습을 비교해 본 그림
- 2년 주가상승률은 지금보다 2009년이 더욱 강력했음을 확인. 상승세는 2011년 중반 미국 신용등급강등 쇼크와 함께 중단
- 확장국면의 공통점은 미연준 양적완화정책으로 풍부한 유동성을 기반에 두었고, 실질경제 회복도 느렸던 것이 특징
- 돌발악재는 우호적 유동성 환경을 불편하게 만드는 통화/재정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큼. 재정위기, 외환위기 등의 작은 파장을 글로벌 자본시장이 통제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과정이 중요.

강세장 둔화의 기억 _ 속도가 느려질 수 있으나 중장기 추세는 유지



자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코스피 3,000p 시대의 첫 저항은 어떤 모습일까?

- 앞서 점검한 강세장 둔화국면을 현재와 비교하면, 현재 투자환경은 금융위기 극복 과정과 가장 유사함. 경기사이클도 저점 통과 기대를 높이는 만큼 앞으로 펀더멘탈 모멘텀 지원 사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 2011년과 가장 큰 차이는 시장을 주도하는 매수주체가 다르다는 점. 2009년부터 3년간 외국인은 거래소에서 무려 45.9조원 순매수를 기록했고, 현재는 개인이 약 47.2조원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음. 모멘텀 방향성과 정책 지원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주식시장의 붕괴를 걱정하기 보다 기간조정 환경의 대응전략 고민이 필요한 시점.

강세장 둔화 국면의 투자환경 공통점과 차이점. 현재는 금융위기 극복과정과 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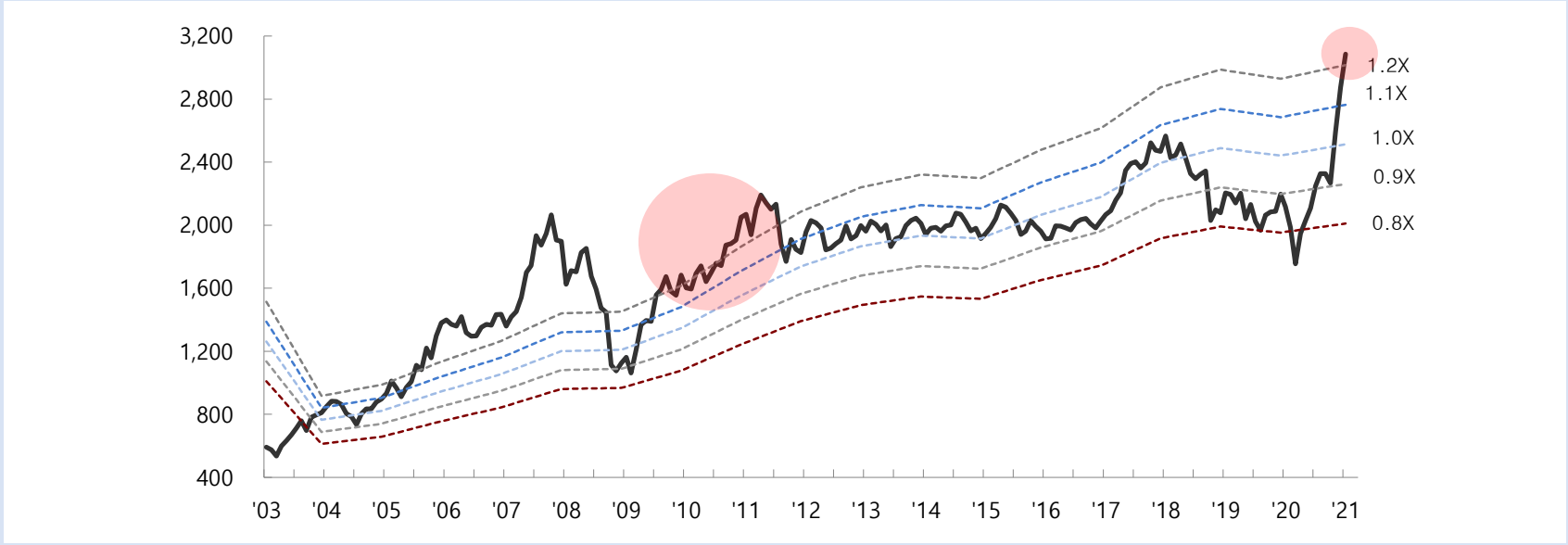
구 분	2006~2008	2009~2011	2016~2018	2019~현재
경기	활황	침체/회복	활황	침체
통화정책	긴축	완화	긴축	완화
이익모멘텀	정점통과	저점통과	정점통과	저점통과
매수주체	개인(6.1조) 기관(44.2조)	외국인(45.9조)	외국인(12.1조)	개인(47.2조)
충격요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미국 신용등급 강등	미중 무역전쟁	?

자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PBR 1.2배는 '걱정의 벽 ' 이 될까?

- 코스피는 연초부터 3,000p를 상회하며 12개월 예상이익 기준 PBR 1.2배를 상회하고 있음. 앞서 점검했던 강세장 둔화국면(2009년~2011년)에도 당시 코스피는 PBR 1.2배를 기준선으로 등락을 반복하며 확장국면을 이어감. 시장친화적 금융정책과 펀더멘탈 안정국면 진입까지 고려할 때 1.2배는 기준선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 다만, 순자산가치를 위협하는(자산상각, 부채증가 등) 환경이 조성될 경우, 증시 역사에 기록되었던 것이 반복되며 강력한 저항선으로 돌변할 가능성도 잠재되어 있음

코스피와 12개월 예상 PBR 밴드



자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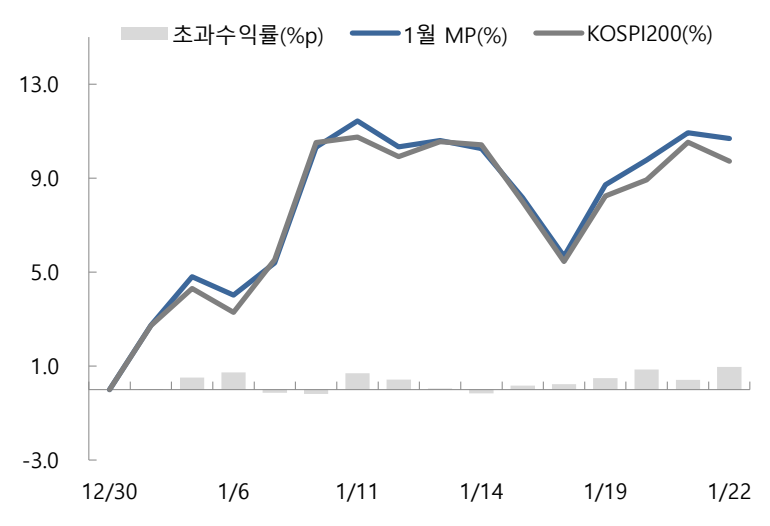
구름을 따라 다니면, 태양을 볼 수 없다

-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경제환경 무엇 하나 익숙한 것이 없다. 새로운 지수 영역을 경험한다는 것은 투자경력이 30년이 되었든, 3개월에 불과하든 동등한 위치에서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국내증시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해왔지만 이토록 빠른 반응과 변화는 필자도 익숙하지 않다. 지난 짧은 과거의 데이터가 변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 부정하고 보는 신중함이 투자전략을 수립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기도 한다.
- 주가가 급등하면 본능적으로 방어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 있다. 주식시장의 변화 만큼 사회구성원 각각의 삶이 크게 발전되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할 때 더욱 그렇다. 실물경제 안에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을 뿐 언제든 부작용을 만들어 낼 만한 '무증상 경기침체 ' 가 상존하고 있다. 언제쯤 이 문제를 다룰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시점을 고민하기 보다 현재의 변화를 빨리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시장참여자는 생각한다.
- "구름을 따라 다니면, 태양을 볼 수 없다". 필자가 세미나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다. 수많은 투자정보를 수집하다 보면 밝은 미래를 예상하는 것이 쉽지 않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보수적인 동물인 듯 싶다. 익숙하지 않은 길을 걷게 된다면 앞으로 달려가기 보다 주변을 살피며 도망칠 수 있는 탈출구를 미리 확보하려는 행위는 자연스럽다.
- 우선 2021년 강세장의 핸들은 개인이 쥐고 있다. 아직 피곤함을 느끼지 않고 있으며 완주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장거리 주행의 자신이 있다면 돌발적인 상황에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차의 안전을 보조석이나 뒷자리에 앉은 동행자가 결정짓지 않을 것이다. 핸들을 잡고 있는 주도세력의 반응을 살피고, 체력적인 문제가 없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잠깐 피할 수 없는 구름이 지나갈 수도 있다. 이동할 것인가? 기다릴 것인가? 어떤 선택이든 태양을 볼 수 있다는 믿음을 잊지 않길 바란다.

1월 모델 포트폴리오 리뷰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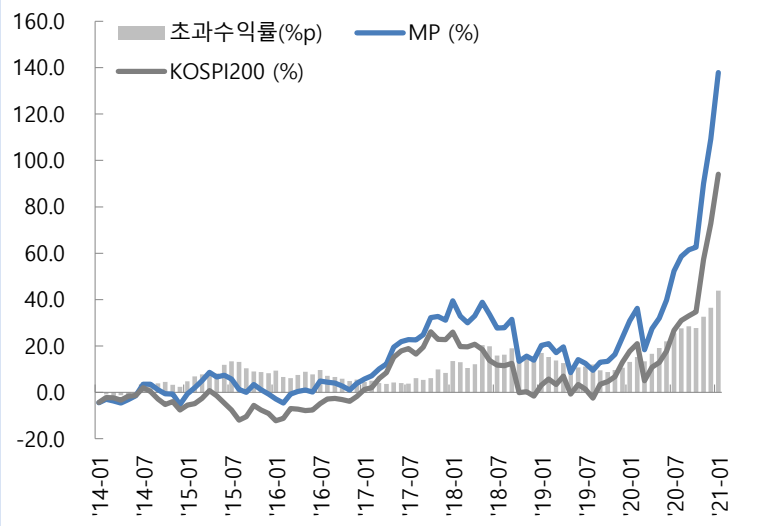
- 1월 모델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13.71%를 기록 벤치마크(KOSPI200) 대비 +1.38%p 상회한 결과를 보임
- 2014년 이후 MP의 Hit Ratio는 58.82%로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으며, 현재까지 누적 수익률은 137.93%를 기록, 시장대비 초과 수익을 기록하고 있음
- 성장 산업을 주도하는 반도체 업종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편입한 것이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현대차, 기아차, 만도 등 경기소비재 섹터 비중을 높이고, 경기민감주에 해당되는 업종 대표주를 기본 편입해 된 것이 벤치마크 수익률을 따라 잡을 수 있던 것으로 평가됨.

1월 모델 포트폴리오 월간 누적 수익률



자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당사 모델 포트폴리오 누적 수익률(Kospi200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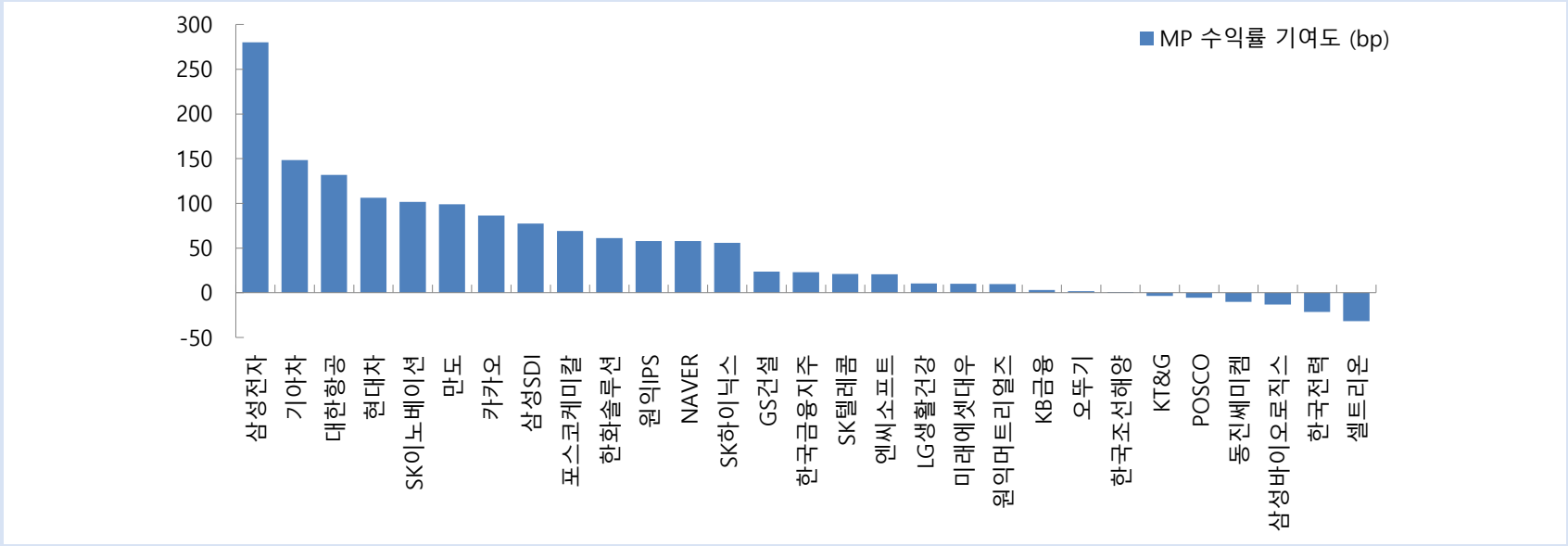


자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1월 모델 포트폴리오 수익률 기여도 분석

- 1월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12월과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의 기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됨. 특히 애플카 이슈로 주목 받은 자동차 업종 대표종목의 편입비중을 높여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음. IT섹터 대형주의 선순환 과정을 대응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반도체 중소형주 성과가 나쁘지 않아 상쇄되는 결과를 보임. 대형주 쏠림현상이 심화되며 헬스케어 섹터 수익률이 부진한 것이 아웃퍼폼 폭을 줄이는 영향을 끼침.

1월 모델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의 기여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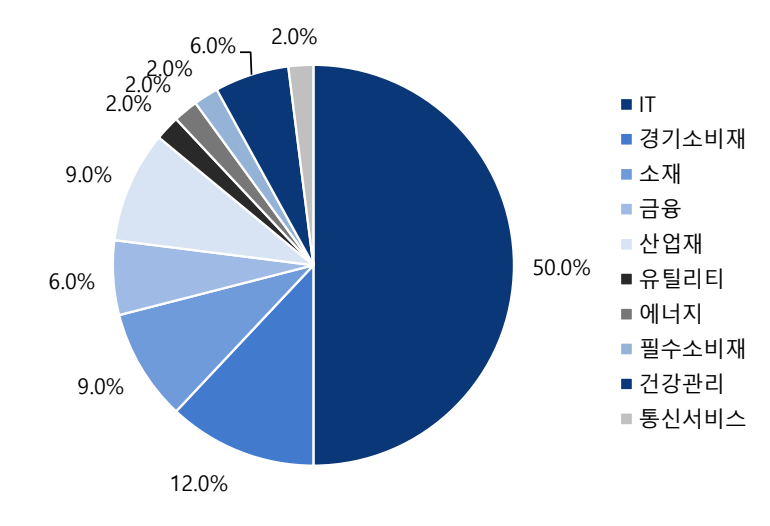


자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2월 모델 포트폴리오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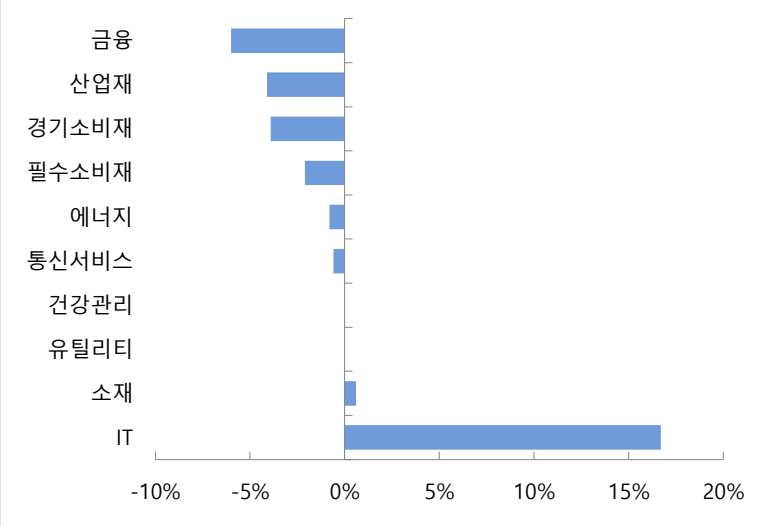
- 2월 모델 포트폴리오는 29종목의 구성종목 수를 유지했고, 3개 종목에 대해 교체를 결정
- KT&G, POSCO, 대한항공을 제외하고, LS ELECTRIC, 대한전선, 현대제철을 신규 편입, 나머지 편입 종목은 편입비중에 대한 미세 조정 진행
- 주식시장의 단기 급등 부담으로 모델 포트폴리오의 수익을 보존하기 위한 전술적 비중 축소는 효과적이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 수익률 방어용 섹터 및 종목 편입은 어려운 시장국면으로 평가되고, 현금보유 비중을 높일 수 있는 투자자는 변동성 확대시 일시적으로 높이는 선택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

1월 모델 포트폴리오 업종별 비중



자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업종별 벤치마크 대비 초과 비중(Active Risk)



자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2월 교보 모델 포트폴리오

2월 모델 포트폴리오(1) (단위: %, X)

섹터	코드	Name	시장 비중	MP 비중	MP -시장	베타	EPS증가율(%)		ROE(%)		PER(배)		PBR(배)	
							2019F	2020F	2019F	2020F	2019F	2020F	2019F	2020F
에너지	A096770	SK이노베이션	1.2	2.0	0.8	1.4	(61.2)	적전	3.5	(12.5)	41.9	(13.2)	1.4	1.6
소재	A003670	포스코케미칼	0.4	2.0	1.6	1.0	(19.5)	(70.4)	13.1	3.1	81.8	276.7	9.8	8.3
	A004020	현대제철	0.3	2.0	1.7	1.5	(85.7)	적전	0.3	(0.9)	105.1	(40.4)	0.4	0.4
	A009830	한화솔루션	0.4	3.0	2.6	1.4	42.1	90.6	4.3	8.3	35.8	18.8	1.5	1.5
	A104830	원익머트리얼즈	0.0	2.0	2.0	0.7	(26.3)	(0.3)	-	9.6	15.0	15.0	-	1.4
산업재	A006360	GS건설	0.2	2.0	1.8	1.3	(9.4)	(26.1)	14.7	10.0	6.1	8.2	0.8	0.8
	A010120	LS ELECTRIC	0.1	3.0	2.9	1.5	(5.5)	(23.6)	9.3	6.9	16.8	21.9	1.5	1.4
	A001440	대한전선	0.1	2.0	1.9	1.7	-	-	-	-	-	-	-	-
	A009540	한국조선해양	0.4	2.0	1.6	1.3	흑전	(56.7)	1.6	0.7	39.9	92.1	0.7	0.7
경기소비재	A051900	LG생활건강	1.2	3.0	1.8	0.9	15.9	4.4	20.7	18.5	37.5	36.0	6.8	5.9
	A005380	현대차	2.6	3.0	0.4	1.4	107.9	(41.7)	4.5	2.6	23.4	40.1	1.0	1.0
	A000270	기아차	1.8	3.0	1.2	1.6	76.4	(31.9)	7.3	4.7	18.5	27.2	1.3	1.3
	A204320	만도	0.2	3.0	2.8	1.7	34.8	적전	9.6	(0.1)	25.8	(1921.4)	2.4	2.4
금융	A105560	KB금융	0.9	2.0	1.1	0.7	9.0	4.9	9.0	8.7	5.5	5.3	0.5	0.4
	A006800	미래에셋대우	0.3	2.0	1.7	1.3	35.9	29.6	7.4	8.7	12.7	9.8	0.8	0.7

자료: Quantiwis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주: 베타 60개월 기준, 업종/종목 비중은 1/25 종가 기준

2월 교보 모델 포트폴리오

2월 모델 포트폴리오(2) (단위: %, X)

섹터	코드	Name	시장 비중	MP 비중	MP -시장	베타	EPS증가율(%)		ROE(%)		PER(배)		PBR(배)	
							2019F	2020F	2019F	2020F	2019F	2020F	2019F	2020F
금융	A071050	한국금융지주	0.2	2.0	1.8	1.2	53.3	(3.5)	17.4	15.1	6.7	6.9	1.0	1.0
필수소비재	A007310	오뚜기	0.1	2.0	1.9	0.6	(34.2)	9.3	8.7	9.1	19.3	17.6	1.5	1.5
IT	A005290	동진쎄미켐	0.1	3.0	2.9	0.7	-	-	-	-	-	-	-	-
	A005930	삼성전자	25.2	27.0	1.8	1.1	(47.0)	24.8	8.8	10.3	28.0	22.4	2.4	2.2
	A000660	SK하이닉스	4.6	4.0	-0.6	0.9	(84.1)	49.1	5.2	7.5	39.7	26.6	1.9	1.8
	A240810	원익IPS	0.1	3.0	2.9	1.0	(58.7)	211.9	9.6	20.8	60.8	19.5	5.0	3.6
	A035420	NAVER	2.7	3.0	0.3	0.9	(26.0)	75.2	8.8	13.3	119.9	68.4	8.9	7.6
	A035720	카카오	2.0	4.0	2.0	1.1	241.4	147.9	3.4	8.1	226.3	91.3	7.2	6.9
	A036570	엔씨소프트	1.0	3.0	2.0	0.4	6.0	43.5	17.6	22.9	49.3	34.3	7.7	6.7
	A006400	삼성SDI	2.6	3.0	0.4	1.0	(28.6)	18.8	4.1	4.7	111.1	93.5	4.3	4.1
건강관리	A068270	셀트리온	2.0	3.0	1.0	0.7	22.0	85.2	12.0	19.2	137.5	74.2	15.5	12.8
	A207940	삼성바이오로직스	2.5	3.0	0.5	1.1	(79.7)	364.6	1.1	-	1150.5	247.5	12.5	11.5
통신서비스	A017670	SK텔레콤	1.0	2.0	1.0	0.7	(64.9)	21.4	4.8	5.7	19.3	15.9	0.8	0.8
유틸리티	A015760	한국전력	0.7	2.0	1.3	0.7	적확	흑전	(2.6)	2.4	(8.7)	9.6	0.2	0.2

자료: Quantiwis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주: 베타 60개월 기준, 업종/종목 비중은 1/25 종가 기준

Epilogue .. 누가 더 공포를 느낄까?

- 세상 모든 정보가 집결하는 주식시장.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투자정보는 영업환경 변화, 실적, 경영전략 등으로 한정되지 않고, 미래를 그릴 수 있는 밑그림, 채색, 방법 등 모든 것을 숫자로써 표현하고 있다. 이렇듯 광범위한 변화가 매일 바뀌는 주식시장에 속속 반영된다는 것은 우리가 대단히 큰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 주가가 급등하면 뒤늦게 뛰어든 투자자는 당연히 불안할 것이다. 모든 투자가 손실의 위험을 감내하는 경제활동인 것만은 맞지만, 마음 한 켠을 불편하게 만드는 공포가 항상 자리잡고 있을 것이다.
- 그런데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투자환경에서는 어떨까?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도 겁나지만, 수익을 실현하려는 사람도 걱정이 있다. 수익을 본 상황에서 배부른 소리라 말할지 모르겠지만, 재진입의 타이밍을 맞추기 힘들다는 불안감이 근심을 키울 수 있다. 그래서 주식투자에 있어 매수 보다 어려운 것이 매도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 코스피가 가볍게 3,000p를 넘긴 것도 '매도자의 공포 ' 에서 시작된 측면이 있다. 과열양상을 보이는 시장국면에서 객관적인 판단으로 이탈했던 투자자가 신속히 재진입하며 진형을 갖추는 선순환 구도가 1월까지 연초랠리 이면에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단기추세에 대한 투자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수급환경의 선순환이 '와해 ' 되는 양상을 보이지 않는지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 매도자가 공포를 느끼는 상황이 아닌 대기 매수자의 근심이 커지는 시점. 개인의 매수가 코스피를 방어하고 지수를 밀어 올리던 공식이 엇박자가 나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 저가매수 기회는 분명히 다가온다.